

질문

독서 활동과 인성교육을 연계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버킷카드 활용과 관련하여)

답변

동대문중학교 정미선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독서활동의 대부분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독후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독서를 수업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죠. 모두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고 글을 이해했는가 묻는가하면, 느낌을 그림으로, 글로, 표지로, 광고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독서를 인성교육과 연계할 때 사람을 들여다 보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긍정적 입장에서 미덕을 살펴보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미덕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활용한 카드가 ‘버츠크드’입니다. 전세계의 52개 미덕을 중심으로 미덕의 내용이 무엇인지 카드에 적힌 내용으로 살펴보고, 작품 속 인물을 선택하여 갖추고 있는 미덕과 갖추지 못한 미덕 또는 필요한 미덕을 찾아서 긍정과 부정의 두 입장에서 모두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미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토론과정으로 살펴보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독서 전 : 제목이나 표지, 핵심단어 등으로 내용 상상하기

독서 중 : 2, 3차시에 걸쳐 책 함께 읽기

독서 후 : 인상깊은 인물을 선택하여 갖추고 있는 미덕과 갖추어야 할 미덕 찾기(예를들어 '자전거도둑'의 수남이는 양심적인 미덕과 바른 판단력에 대한 미덕을 갖추고 있었지만 책임감에 대한 미덕이 부족했다. 그래서 자동차 수리비를 물어주지 않고 자전거를 들고 도망을 간 것이다.)

인물의 다양한 미덕 찾기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든 독서 전, 중의 활동은 다르지만 독서 후 활동은 버추카드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학년 학생대상 버추카드를 활용해 보시면서 이해가 안되거나 독서 지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매중학교 김선녀 컨설턴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상쾌한 가을 날씨가 며칠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좀 너무 더워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절의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의 열정에 학생들이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독서와 인성교육에서 버추카드 활용과 버킷카드 활용에 대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버츄카드는 시판되는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버츄카드에는 52개의 인성덕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문학수업에서 시의 주제라던지, 소설의 주제, 주인공에게 필요한 것 등등에서 이 카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백꽃의 점순이에게 필요한것은? 이란 질문을 교사가 던지고 학생들은 이 버츄카드에서 하나를 골라 연결시켜 말을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기지'란 단어를 골랐다면, '점순이에게는 기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감자를 거절 당했을 때 재치있게 대응했다면,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말하는 것이죠.

이때 버츄카드는 기존에 제작된 것을 활용하는 수업이므로 52개의 단어를 선생님께서 먼저 확인 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교사가 수업을 계획할 때 필요한 단어를 재구성하여 자체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 이 방법을 버킷카드 활용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단원에서 핵심 단어를 뽑아 수업 전에 동기유발 형식으로 주제어와 카드를 연결시켜 발표하는 방법과, 수업 후 카드를 고르고 수업 내용을 다시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 선생님 중에는 자녀들이 썼던 한글카드를 가지고 수업에서 활용하셨습니다. 학생의 창의적인 답변이 아주 재미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해 내는 기쁨도 크다고 합니다.

또한 프리즘 카드라고 사진으로 된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 중에 하나를 골라 발표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주제적인 감상과 관련된 문학 단원에 적절했습니다. 시를 감상한 후 카드를 골라 그 카드와 시의 내용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추카드, 버킷카드, 프리즘카드 등등은 제가 생각하기에

1. 모든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2. 학생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3. 뽑은 카드와 수업의 내용을 연결시키려는 고민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 가능

새로운 수업으로 학생들과 즐겁게하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